

尙州 擎天臺와 시적 공간으로서의 의미

김 승 룡*·최 금 자**

- I. 들어가며
- II. 경천대: 채득기와의 만남
- III. 船遊에의 염원과 연대적 소통의 공간
- IV. 기억으로 소환된 靑潭과 은일의 공간
- V. 땃음말을 대신하여: 幽興 너머를 상상하다
- 부록: 擎天臺有關漢詩輯錄

국문초록

경천대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유역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승경지 중 하나로, 과거 경천대 일원은 많은 시인 묵객들이 방문하여 자연의 경관을 노래하거나 시를 읊어 풍류를 즐긴 곳으로 많은 기록이 있다. 수려한 경관 이외에도 임진왜란 때의 명장 鄭起龍(1562-1622) 장군이 젊었을 때 경천대에서 수련을 쌓았던 곳이며, 병자호란으로 인해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청나라 심양으로 볼모로 끌려갈 때, 동행한 靑潭 蔡得沂(1605-1646)가 은거한 곳이다. 경천대는 채득기와의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기우제를 지내는 신령한 곳이나,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명승지로서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제 1저자. / laohu99@pusan.ac.kr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박사 수료생, 제 2저자. / kumja104@hanmail.net.

만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636년 병자호란 이후, 채득기가 자천동에 터 잡은 뒤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경천대가 채득기와 함께 인식되었다.

경천대 한시 작품은 첫째, 낙동강을 중심으로 열었던 뱃놀이 문화로 인해 창작된 작품이다. 상주의 낙동강에서 뱃놀이를 하고 시를 창작한 기록은 병진년(1196)에 李奎報에서 임술년(1862)에 柳疇睦까지 666년 동안 총 51회 시회를 가졌다. 이 중에 ‘商山船遊詩會’가 대표적이다. 이 시회는 상주의 제1경으로 알려진 擎天臺에서 배를 띄워 동남쪽의 道南書院을 거쳐 觀水樓에 이르는 30여리의 구간에서 시회가 개최되었고, 1607년부터 1778년까지 171년 동안 총 8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蒼石 李堧(1560-1635)을 중심으로 한 이 선유 시회는 낙강시회의 한 전범이 되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서 경천대는 문인들의 文會를 위한 공간이었고 특히 船遊의 공간에서 빠지지 않았다. 또한 상주 지식인의 유대관계를 위한 곳으로 이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 즉 소통의 공간이었다.

둘째, 채득기를 회상하고 그의 정신을 담은 작품이다. 채득기가 명·청 교체기에 급박한 위기를 경험했을 때 명과의 의리를 지키고 세상을 피해 은거한 곳임을 형상화하고 있었으며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채득기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경천대가 있는 이곳 상주가 ‘商山’이라 하여 ‘商山四皓’ 같은 덕 높은 은사가 살 만한 선비의 고장, 신선의 고을로 일컬어진 것과 상통한다. 특히 상주지역은 낙동강 상류인 안동지역과 전통적으로 밀접한 인맥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퇴계의 제자인 류성룡은 상주에서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그 제자들이 스승에게서 이어받은 선비정신이 일상화하던 지역으로 인식된 것에서 또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주제어

경천대(擎天臺), 자천대(自天臺), 상주(尙州), 우담(霧潭), 채득기(蔡得沂), 선유(船遊), 도남서원(道南書院)

I. 들어가며

예로부터 선조들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지역을 팔경이나 구곡 등으로 명명하고 정자나 누각을 짓고 자연을 감상하면서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여왔다. 또한, 문학 활동의 장소이자, 자연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는 장소로 휴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풍류 행위가 이루어져 왔고, 수려한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왔다. 곧 선조들의 삶과 철학과 예술이 담겨 있는 곳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경천대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의 낙동강 절벽에 위치했다. 경천대 앞으로는 문경 서쪽에서 흘러온 낙동강이 사벌면과 중동면, 낙동면과 중동면, 낙동면과 의성군 단밀면 사이를 굽어 흐르는데, 그 중간에 사벌면 玉柱峯, 중동면 飛鳳山, 낙동면 屏風山 같은 산과 기암절벽을 만나 부단히 동, 서로 S자의 연속형태를 이루며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경천대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유역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승경지 중 하나로, 과거 경천대 일원은 많은 시인 묵객들이 방문하여 자연의 경관을 노래하거나 시를 읊어 풍류를 즐긴 기록들이 있고, 현재는 국민관광지라 불릴 만큼 관광객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천대는 수려한 경관 이외에도 임진왜란 때의 명장 鄭起龍(1562-1622) 장군이 젊었을 때 경천대에서 수련을 쌓았다는 이야기와 병자호란으로 인해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청나라 심양으로 볼모로 끌려갈 때, 동행한 靄潭 蔡得沂(1605-1646)라는 인물이 은거하여 산수를 경영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천대와 채득기에 대한 선행 연구에는¹⁾ 홍재휴(1959)가 발표한 우

1) 洪在休, 「靄潭 蔡得沂와 鳳山曲 研究: 丙子胡亂을 背景한 歌辭의 新資料」, 『語文學』, 韓國語文學會, 1959; 洪在休, 「靄潭 蔡得沂와 〈天臺別曲〉(一名 〈鳳山曲〉)에 對하여: 丙子胡亂을 背景한 歌辭의 新資料」,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1960; 강구율, 「靄潭 蔡得沂의 生涯와 詩世界 研究」, 『東漢文學』 20, 대동한문학회, 2004; 권태을, 「자천동산수록고」, 상주문화 18, 2008; 권태을, 「우담 채득기의 군신언지록고」, 상주

담 채득기와 봉산곡의 연구 이후 성과가 없다가 김기탁(1991), 강구을(2004)에 의해 우담 채득기의 시세계를 고찰한 바 있다. 권태을(2008)은 채득기의 『군신언지록』과 「자천동산수록」을 연구하였으며, 황위주(2008)는 낙동강 연안의 유람과 창작 공간에 대해 논의하면서 상주 낙동강 일대를 중심으로 열렸던 시회에 주목하여 경천대와 채득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낙강 船遊를 소재한 작품에도 경천대에 대해 일부 조명되고 있다.²⁾ 그런데 경천대를 소재로 창작된 한시 문학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조명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선행 연구를 적극 수용하여 경천대의 연혁을 살피고, 경천대를 소재로 창작한 한시작품을 통해 경천대의 공간 인식을 조명하고자 한다.³⁾

II. 경천대: 채득기와의 만남

경천대는 일찍부터 상주의 선비들이 유상하던 곳이었지만, 특별히 승

문화연구 18, 2008; 황위주, 「낙동강 연안의 유람과 창작 공간」, 『漢文學報』 18, 우리한문학회, 2008; 박영주, 「백의 처사의 은일을 노래한 우담 채득기」, 『오늘의 가사문학』, 2020; 송재연, 「가사 <天臺別曲>에 구현된 자연의 형상과 의미」, 『문학과 환경』 20, 문학과 환경학회, 2021.

조경분야연구에 이재근, 「명승지정 평가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상주 경천대를 중심으로-」 『産業科學研究』, 상명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2004; 이윤희·김수진·심우경, 「우담 채득기의 경천대 경영에 나타난 문화경관 요소의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 2010; 이윤희, 「상주 경천대 일원의 명승지정을 위한 자연, 문화경관 해석」, 高麗大學校 大學院 국내석사논문, 2011.

- 2) 권태을, 「낙강시회연구- 상주권 낙동강 중심으로」, 『상주문화연구』 2, 상주산업대학 상주문화연구소, 1992; 권태을, 「낙강범월시회의 사적고찰」, 『상주산업대논문집』 32, 상주산업대학, 1990; 손유진, 「『壬戌泛月錄』에 나타난 空間 認識의 樣相과 意味」,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논문, 2011; 조규백, 「조선조한문학에 나타난 소동과 ‘적벽선유’의 재연구 -『임술범월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예술』 38, 숭실대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1.
- 3) 본고의 경천대 한시는 권태을 역주, 『역주 낙강범월시』, 아세아문화사, 2007와 한국고전종합DB에서 「경천대, 자천대, 龍淵·龍岩·龍湖·玉柱·玉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된 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경지로 이루어지거나 터를 일구지는 않았다.

위아래가 모두 바위로 뒤덮인 뿔봉우리 하나가 우뚝 서 있으니 그 이름이 玉柱峯이요, 마치 흙을 쌓아 놓은 듯 위가 평평하여 앉아서 노닐 수 있는 높다란 臺가 있으니 그 이름이 自天臺인데, 이는 모두가 그 지방 사람들이 옛날부터 불러온 이름들이다. 강의 정상적인 흐름이 산의 바위를 만나 곧장 흘러내리지 못하고 고리처럼 빙 두르면서 潭水가 형성되었는데, 하도 깊고 고요하여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길이 없다. 예로부터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그 물 아래에 伏龍이 살기 때문에 그곳의 경치가 제 아무리 기막히게 좋아도 사람이 감히 그 근처에 터를 잡고 살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옛날 언젠가 큰물이 지고 가뭄이 들었을 때 그곳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雩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나, 그 일이 어느 시대 때의 일인지는 알 수가 없다.⁴⁾

澤堂 李植(1584-1647)이 우담 채득기에게 부탁받고 쓴 〈舞雩亭記〉의 일부이다. 자천대라는 명칭을 일찍부터 불려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었고, 오래전부터 신성지로 기우제를 지냈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1617년 창석본 『商山誌』에도 이곳은 소개된 바가 없고, 1622년 7월 16일에 개최된 ‘洛江泛月詩會’에서 자천대, 경천대란 명칭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당시의 시집 『洛江泛月詩』에 나타난 자천대 지칭으로서는 ‘龍淵·龍岩·龍湖·玉柱·玉峰’ 등으로 알려져 있다.

翌日泝龍淵
清幽探更悉

이튿날 용연으로 거슬러 올라
맑고 그윽한 곳 새삼 다 탐승하였네.

龍淵沸黑那可俯
鐵壁屹立千丈危
何年雷斧削玉柱
上有瑤草生離離

용연이 검푸르니 어찌 굽어볼 수 있으랴
철벽은 우뚝 천 길 높이로 섰네.
어느 해 뇌신의 도끼로 옥주를 깎았던가
그 위엔 신선초 무성히 자란다네

4) 李植, 〈舞雩亭記〉, 『澤堂集』 권5; 『한국문집총간』 88, 348-349쪽: “(상략) 上下皆石曰玉柱峯, 峙而爲臺, 上平可坐曰自天臺, 皆從土人舊呼也. 江之經流, 遇山巖不能直瀉, 環洄而爲潭, 深靜不可測, 自古相傳下有伏龍, 故其地雖奇勝清絕, 人無敢俾而居之. 以舊嘗水旱有禱, 故得名爲雩. 不知何代事也(하략)”

聯翻冠盖集龍岩
岩下深湫澎湃沸

연이어 벼슬아치들 용암으로 모이니
바위 밑 깊은 못물 들끓는 듯하네

玉峰千疊俯龍淵
(중략)

천 겹의 옥봉은 용연을 굽어보는데

茲區從古稱靈境

이곳은 예로부터 신령한 땅으로 일컫던 곳⁵⁾

순서대로 趙靖(1552-1636), 李堧(1558-1648), 金知復(1568-1635), 李身圭(1600-1681)의 작품이다. 이 작품들을 통해 1622년에도 자천대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고 ‘옥주·옥봉·용암·용연’ 등으로 표현하여 기우제 터였기에 용과 관련된 못으로 일컬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때까지는 상주인들에게 이곳은 기우제를 지내는 신령한 곳이나,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명승지로서만 인식되어 있다.

그런데 채득기가 자천동에 터를 잡은 뒤로부터 경천대가 알려지게 된다. 그가 이곳에 은거하게 된 사정을 살펴보자.

蔡君 詠而가 새로 거쳐하게 된 靄潭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에게 記文을 지어 달라고 부탁하기에 내가 그곳의 모양새를 말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洛東江은 黃池에서 발원하여 여덟아홉 고을을 거치면서 천 수백 리를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중략) 그러다가 우연히 商山의 북쪽, 檜谷의 남쪽, 梅湖의 아래에서 깊숙하고 그윽한 터를 얻었다. 그곳은 세 봉우리가 뒤에 우뚝 솟아 있고, 큰 강이 그 앞을 지나며, 절벽이 에워싸 안았고, 기암이 빙 둘러 있는데, 그 안에 물이 소용돌이치면서 검푸른 빛을 띠고 있는 곳이 있으니, 그곳을 우담이라고 한다. 그 우담은 능히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뿌려서 기우제를 지내면 應驗이 있다. 평평하여서 디디고 설 수 있을 만한 돌이 있는데, 그곳을 觀魚臺라고 한다. 그 물이 매우 맑아서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을 고개 숙여 헤아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높아서 절로 일어난 것을 自天臺라고 하는데, 기묘하고 빼어나서 사람의 솜씨로 만들 수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그 위에 새로 정자를 지었는데, 정자 이름은 舞靄亭이다. 이는 曾點이 沂水에서 목욕한 뜻을 취한 것으로서, 시대는 비록 다르지만 취지는 같은 것이다. 자천대 아래에 석굴

5) 권태을 역주, 앞의 책, 44쪽, 48쪽, 66쪽, 98쪽.

이 하나 있는데, 깊숙하고 넓고 평평해서 5, 6십 명 이상을 수용할 수가 있으며, 무더울 때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서늘한 기운이 돌아 마치 얼음을 품고 있는 듯하다. 석굴이 문이 되어 겨우 한 사람씩만 통과할 수가 있다. 옛날 사람들이 병란을 피해 들어가 몸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시골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말을 전하고 있다. 그 곁에 작은 굴이 또 하나 있는데, 굴속에서 나는 맑은 샘물은 달고 차가우며, 佛寺가 있었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산으로부터 정자에 이르고 정자로부터 우담에 이르는데, 흰모래로襟帶를 삼고, 푸른 소나무로 울타리를 삼았으며, 또 아름다운 나무와 특이한 화초와 이름난 꽃과 기이한 풀들이 봄가을로 단장을 하여, 위아래에서 서로 비춘다. 그러니 이것은 한 구역의 뛰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운치로서, 참으로 한두 마디의 말로는 다 형언할 수가 없다. 이보다 앞서 세력 있는 자들이 앞 다투어 이곳을 차지하여 살고자 하였다. 그러나 담 아래에는 용이 살고 있다고 하여 두려운 마음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근년에 용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갔고 내가 마침 이르러 왔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르기를, ‘용이 그대에게 양보한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 이는 하늘이 내게 준 것으로 어찌 운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기록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⁶⁾

이 글은 채득기가 淸陰 金尙憲(1570-1652)에게 雲潭의 아름다움을 기로 읊어주기를 청하여 얻은 글인 〈蔡氏舞雲新亭記〉의 일부이다. 무우정은 『논어』 「선진」편에 증자의 아버지 증점이 “늦은 봄날 봄옷이 마련되면 어른 대여섯 명과 아이 예닐곱 명과 함께 沂水에서 목욕하고 舞雲에서 바람을 쐬고 시를 읊으며 돌아오겠습니다.”라고⁷⁾ 말한 구절이

6) 金尙憲, 〈蔡氏雲潭新亭記〉, 『淸陰集』 권38; 한국문집총간 299, 33쪽: “蔡君詠而, 以其新居雲潭之美, 屬余記之. 余徵其狀, 其言曰, 洛東之江, 發源於黃池, 經八九郡千數百里入于海. (중략) 偶於商山之北, 檜谷之南, 梅湖之下, 得奧區焉. 三峯峙其後, 大江經其前, 絕壁屏擁, 奇巖環列, 其中蕭然而黑者曰雲潭. 能興雲泄霧, 旱禱有應, 有石夷而可據者曰觀魚臺. 以其水至清, 魚行可俯而數也. 峻而自起者曰自天臺, 以其奇巧絕異, 非人工所可成也. 新構亭其上曰舞雲. 蓋取諸曾點浴沂之義, 異世而同趣也. 自天臺之下有石窟, 窈窕寬平, 容人五六十以上, 當暑入之, 凜然若懷冰. 巖竇成門, 厓通一跡. 昔人避兵多得全, 樵翁野叟至今傳之. 旁有小窟, 窟中清泉甘冽, 梵屋古跡尙存. 自山而亭, 自亭而潭, 以白沙爲襟帶, 以青松爲藩籬, 又有嘉木異卉名花奇草, 春粧秋飾, 交映上下. 此一區之勝觀佳致, 而固未暇一二談也. 先是有有力者爭欲得而居之, 以潭之下爲龍所宅, 懼不敢近. 頃歲龍徙而沂適至. 或以謂龍遜之沂. 則以爲天與之, 豈非有數存焉者耶, 是不可以無記也.”

있다. 채득기의 이름 沂, 자 詠而, 호는 雩潭, 그리고 舞雩亭이란 정자 이름까지 모두 이 구절에 근거한 것으로 세속의 명리를 벗어던지고 산천을 벗 삼아 담담하게 살아가겠다는 소망을 담고 있다.

인용문에서 용의 서식지였던 곳에 영물인 용이 우담에게 양보하였다는 표현하고 있다. 즉 증점이 자연과 동화되어 천성을 지키며 살겠다는 뜻을 취하였기 때문에 하늘이 내려 준 곳이라는 것으로 채득기가 자연과 하나 됨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천대라는 명칭의 유래를 말하고 있다. 높아서 절로 일어난 것으로 기묘하고 빼어남이 사람의 숨쉴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자천대라고 부른 것이다. 〈自天臺山水錄〉에서도 하늘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천대라고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다.⁸⁾ 이식도 〈舞雩亭記〉에서 “우뚝서서 대가 되고 위아래에 가히 앉을 만하여 자천대라 하니, 모두 지방민이 예부터 불러오던 이름을 따른 것이다.”⁹⁾ 라고 하였다. 이로써도 자천대란 이름은 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奇巖斗起自成臺
翠壁東西碧水回
羸羸豈容人力築
層層應是化工裁
雲收玉柱珠簾捲
日射丹崖畫障開
最愛高標千百尺
直擎天闕任無頹

기이한 바위 우뚝 솟아 저절로 臺를 이루니
푸른 절벽 동서에 시퍼런 강물이 감돌아 가네
저 우뚝우뚝한 돌을 어찌 인력으로 쌓았겠는가
층층의 저 돌은 아마도 하늘이 만든 것 일거야
구름이 옥주봉에 걷히니 주림을 거둔 듯하고
햇빛 붉은 언덕에 쏘여 그림자 막 열어 놓은 듯 하네
제일 멋있구나 높이 우뚝한 천 백척은
바로 하늘을 받들어 무너짐 없음을 맡겼네¹⁰⁾

채득기가 자천대를 읊은 작품이다. 높은 바위산 위에 자리한 경천대의 형상과 거기에서 바라본 낙동강 주변 풍경을 읊은 것이다. 1-4구까지는

7) 『論語』「先秦」, “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8) 蔡得沂, 〈自天臺山水錄〉, 『君臣言志錄』, 44쪽, 규장각 장서.

9) 李植, 〈舞雩亭記〉, 『澤堂集』 권5; 『한국문집총간』 88, 348~349쪽: “峙而爲臺, 上平可坐曰自天臺, 皆從土人舊呼也”

10) 채득기, 〈자천대〉, 『君臣言志錄』 12쪽, 규장각 장서.

자천대가 하늘이 만든 대임을, 7-8구는 자천대가 곧 경천대임을 표현하고 있다. 채득기는 실제로 자천동 우담에 터를 잡은 것은 1628년경이다. 그리고 1636년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채득기는 무우정을 짓고 臺 위에는 경천대비를 세워 ‘大明天地, 崇禎日月’ 여덟 자를 새기게 된다. 승명배청 즉 명에 대한 의리를 다하고자 하는 채득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병자호란이 있고 난 뒤인 1637년 소현세자·봉림대군·인평대군이 볼모로 잡혀갈 때, 침술로 聖躬 調護의 명을 받았으나 명을 따르지 않아 유배를 가게 된다. 이후 유배에서 풀려나 1639년 7차례 인조를 치료하고, 12월에 채득기는 봉림대군이 있는 심양으로 가서 대군을 보살피며 신하의 도리를 다한다. 시 구절 “곧바로 하늘을 받들어 무너짐이 없게 함 일세” 라고 한 하늘의 의미는 우리 왕실을 의미한다고 보여 진다. 곧 위기에 서 있는 조선의 왕실을 받들겠다는 것으로 나라를 근심하고 염려하는 충정의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 채득기가 이곳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곳이라 하여 자천대를 경천대라 명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¹⁾ 기존의 자천대로 불리던 곳을 경천대라는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1636년 병자호란 이후, 채득기가 자천동에 터 잡은 뒤로부터 자천대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경천대가 채득기와 함께 인식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經綸不待費人裁
天爲詩仙冊此臺
却恐名區塵跡汚
故教風雨洗蒼苔

경륜은 사람의 마음 허비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하늘이 詩仙을 위해 이 臺를 만들었구나.
이 좋은 곳에 티끌 자욱 더럽힐까 걱정되어
일부러 바람과 비를 뿌려 푸른 이끼 씻어 가게 했대네¹²⁾

채득기가 쓴 〈零潭十詠〉중에 〈天臺異石〉을 읊은 시이다. 7언 절

11) 권태을 외(2012), 『낙동강을 품은 상주문화』, 민속원, 290~292쪽.

12) 채득기, 〈零潭十詠-天臺異石〉, 『君臣言志錄』 13쪽, 규장각 장서.

구 10수로 읍은 〈우담십영〉은 우담이 자천동에 은거하던 초창기에 읍은 무우정 근방의 10경으로 옥주봉과 경천대, 그 아래 우담과 옥탄 및 강 건너편 백사장까지 경천대 주변 곳곳의 아름다운 경관을 두루 작품에 담았다. 그 중에 5경이 바로 경천대로 〈우담십영〉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시에서 경천대는 하늘이 시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공적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채득기가 세속의 명리를 벗어던지고 맑고 담담하게 살아가겠다는 소망을 담고 있듯이 이곳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息山 李萬敷(1664-1732)가 「上洛文會記」에서 자천대를 묘사한 부분이다. 현재의 경천대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자천대는 무릇 삼층인데 밑이 가장 넓고, 가운데는 앉을 만하니 그 앞에 바위를 파서 작은 연분, 관분, 세숫대, 약분을 각각 하나씩 만들었다. 바위 모서리를 따라 몇 발자국 걸어서 맨 위의 대에 오르면 괴이한 돌이 우뚝 솟아 열자쯤 되는데 귀신이 깎은 듯하고 새긴 듯하니, 그 아래가 조금 평평하여 몇 사람이 앉을 만하다. 좌석 한 가운데다 간 돌을 놓아 바둑판을 그려 놓았다. 돌 위에는 묵은 소나무의 가지와 줄기가 서로 엉기고 맺혀서 밀은 여름 해를 가리웠다.(중략) 낙강 상류에는 작은 봉우리가 모두 돌인데 밑은 동그랗고 위는 뾰족한게 강가에 우뚝 솟았으니 옥주봉이라 하고 자천대 밑에는 큰 돌이 강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가 불룩하고 내 귀통이가 줄어들어 마치 생물 같아서 귀암이라 하며 강하류에는 또 바위 봉우리가 크기는 옥주봉의 배가 되는데 높이는 비슷하니 용암이라 하고 바위 밑은 깊은 못을 이루어 그 못 가운데는 용이 살고 있어 늘 가물에 희생을 바치면 영험이 있으니 용담이라 한다.¹³⁾

채득기의 손때가 묻어 있는 공간을 이만부는 채득기 사후 50여년 만

13) 李滿敷, 〈上洛文會記〉, 『息山集』 권17; 『한국문집총간』 178, 384쪽: “臺凡三層, 下最廣, 中可容席, 前鑿巖作小蓮盆盥盆藥盆各一. 因緣石角, 數步而上上臺, 惟石聳立丈許, 鬼剗神刻, 下稍平可容數人坐. 中植礪石, 畫作碁局. 石上古松, 枝榦縹結, 下蔭畏景. (중략) 上流小峰全石, 下圓上尖, 峙于江潯曰玉柱峰, 下大石在江中, 中隆四殺, 如生物曰龜巖, 下流又石峰, 大倍玉柱, 高相等曰龍巖, 巖下成深潭, 潭中有蜃龍, 每旱沉牲有應, 曰龍潭, 皆可觀, 臨夕罷歸, 并識文會記下云.”

에 찾았다. 蓮盆, 盥盆, 藥盆의 석분이 남아 있어 연을 키우고, 세안을 하고, 그리고 약을 조제하는 석지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자천대가 향토사에 최초로 소개된 것은 1749년의 청대본 『商山誌』이다. 「亭觀條」에 자천대는 이름만 올려졌으나 「인물조」에 우담의 경천사상이 소상히 소개되었다. 1832년본 『상산지』 「인물조」에 우담을 충절인으로 입전하였고 나아가 「정관조」에서는 자천대가 곧 경천대임을 알게 하였다.¹⁴⁾

Ⅲ. 船遊에의 염원과 연대적 소통의 공간

낙동강의 빼어난 경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뱃놀이 문화로 경승과 어우러져 문학 작품을 창작하였다. 상주의 낙동강에서 뱃놀이를 하고 시를 창작하였는데 그 기록을 살펴보면, 고려시대 때 이미 李奎報와 安軸이 뱃놀이를 한 기록이 있고, 조선초기에도 金宗直·金駟孫·權五福·李滉 등이 관수루를 중심으로 뱃놀이와 시회를 개최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蒼石 李堧(1560-1635) 이후에도 이런 행사가 더욱 활발하여 洪汝河와 李萬敷를 거쳐 한말의 鄭宗魯와 柳疇睦에 이르기까지 상주 인근의 명망 있는 문인 학자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뱃놀이와 한시 창작을 하였다.¹⁵⁾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시회는 ‘商山船遊詩會’가 대표적이다. 이 시회의 작품은 『壬戌泛月錄』에 수렴되어 있는데, 상주의 제1경으로 알려진 擎天臺에서 배를 띄워 동남쪽의 道南書院을 거쳐 觀水樓에 이르는 30여 리의 구간에서 시회가 개최되었고, 1607년부터 1778년까지 171년 동안 총 8회에 걸쳐 진행되었다.¹⁶⁾ 蒼石 李堧(1560-1635)을 중심으로 한 선

14) 권태을 외 7명, 앞의 책, 310~311쪽. 이외에도 1987년 6월 20일 교통부로부터 국민관광지로 지명 받았고, 같은 해 12월 5일 경상북도청으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었다. 이후 1989년 4월 3일 경천대관광지를 개장하였다.

15) 병진년(1196)에 이규보에서 임술년(1862)에 류주목까지 666년 동안 총 51회 시회를 가졌다.(권태을 역주, 앞의 책, 11~12쪽)

유시회는 낙강시회의 한 전범이 되었다. 먼저 이준이 1622년에 지은 〈洛江泛月詩序〉을 보자.

‘우리들이 비록 賦를 짓는 재주는 없으나, 경치를 만나 취미를 이룸인 즉 마땅히 옛사람에게 부끄러울 것은 없다. 이제 다행히 임술년이 돌아옴을 만났으니, 원컨대 동지 여러분과 더불어 용연으로 배를 거슬러 올라가 옛 일을 이었으면 싶다.’라고 하자, 이에 향토인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기약치 아니하고도 모인 이가 거의 30인이었다.¹⁷⁾

이준은 퇴계의 재전 제자로, 柳成龍의 제자이다. 그는 임술년을 맞아 옛 소동과 적벽선유를 기념하는 뱃놀이를 용연(경천대)을 거슬러 올라가 시행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기약하지 않고 모인 상주인이 거의 30인이다. 겸손한 어투이면서도 경치를 만나 취미를 이루는 것은 옛사람에 부끄럽지 않다고 하여, 내면의 자부심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오래 전부터 이어온 전통을 잇고 싶은 염원이 담겨 있다.

商洛山川嶺外秀
就中佳麗稱龍湖
龍湖之水何淼淼
上有石厓橫雲衢
千年赤壁擅奇絕
恍惚移來天一隅
良辰況值壬戌秋
古人勝賞留吾徒

상락의 산천 조령밖에서 빼어난데
그 가운데 아름다운 곳을 용호라 일컫네
용호의 물 어이 그리 넓디 넓은가
그 위 바위 절벽은 구름 위에 걸렸네
천년의 적벽 기이한 경치로 으뜸인데
황홀하게도 한 모퉁이 옮겨 놓은 듯하네
좋은 때 마침 임술년 가을인데
옛사람 경치 보던 일 우리에게 남기었네¹⁸⁾

16) 『壬戌泛月錄』(일명 洛江泛月詩) 외에 1663년부터 1798년까지 135년 동안 총 18회에 시회를 가진 『흥관관운』이 있다. 흥여하의 시에 대를 이어 차운한 것이다. (권태을 역주, 앞의 책, 21쪽)

17) 李垞, 〈洛江泛月詩序〉, 『蒼石續集』 권5; 『한국문집총간』 65, 40쪽: “吾儕雖非作賦之才, 然其觸景成趣, 則宜無媿於古人. 今幸而遇壬戌之回, 願與同志, 泝龍淵而續古事, 於是鄉之少長不期而聚者三十八人”

18) 柳軫, 〈壬戌七月既望, 泛舟龍淵, 分韻得蘇字〉, 『修巖集』 권1; 『한국문집총간』 19, 465쪽.

이준과 같이 참석한 修巖 柳軫(1582-1636)의 작품으로 蘇자 운을 얻어 7언 42구를 지었다. 그 가운데 일부이다. 류진은 서애의 三子이며 37세에 상주로 이거하여 상주의 학문에 크게 공헌하였던 인물이다. 작품에서 경천대의 경관을 적벽강의 경치에 비견하고 있다. 그는 선유의 시작과 함께 경천대의 경관에 대해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들이 누리는 풍류가 소동파의 그것과 비교해 전혀 손색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선인들이 남긴 전통이 잘 이어지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다.

諸公標致出塵寰
暇日清遊特地閑
道院巍巍臨洛水
天臺矗矗擅商山
佳篇迭唱雲霞裏
勝蹟流傳翰墨間
自恨疎慵違盛會
夢魂時逐鷗鷺還

여러 공의 풍격은 티끌세상에서 뺄어나고
여가 날의 청류는 땅의 한가로움에서 유다르다.
도원은 높고 높이가 낙수에 임해 있고
천대는 우뚝 솟아 상산에 으뜸이네
좋은 시편은 운하 속에서 주고받으며
명승고적은 필묵 사이에서 떠돌아 전해지리라.
스스로 성글고 게을러 성대한 모임과 멀어짐이 한스러워
꿈속의 님은 때때로 갈매기 따라 돌아오려네.¹⁹⁾

孫萬雄(1643-1712)이 자천대를 소재로 수창한 작품을 모은 책에 붙인 작품이다.²⁰⁾ 無忝齋 鄭道應의 문하에서 수업하였으며 당시 博泉 李沃과 瓶窩 李衡祥 등과 교유하였다. 자천대를 배경으로 모인 여러 선비들을 칭송하고 자천대의 빼어난 경치에 대해 읊고 있다. 주변에는 도남서원이 위용 있게 자리하고 있으며 자천대는 상산의 제1경임을 상기하고 있다. 그런데 승경, 동류들과 헤어지는 아쉬움은 꿈속에라도 다시 찾아오리라고 위로하며 마무리한다.

도남서원은 선조39년에 지방 유림의 공론에 따라 설립되었다. 처음에

19) 孫萬雄, 〈題自天臺酬唱帖〉, 『野村集』 권1; 『한국문집총간』 46, 341쪽.

20) 孫萬雄(1643-1712): 본관은 慶州, 자는 敵萬, 호는 野村이다. 조부 糖이 복재 정국성의 사위가 되어 상주 울리로 이주해옴으로써 야촌도 이곳에서 태어났다. 1669년 생원이 되고 이어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은 부윤, 목사에 이르렀다. 無忝齋 鄭道應의 문하에서 수업하였으며 당시 博泉 李沃과 瓶窩 李衡祥등과 교유하였다.

는 鄭夢周·金宏弼·鄭汝昌·李彦迪·李滉 등 5분을 모셨다가, 광해군8년 盧守愼과 柳成龍을, 인조13년에 鄭經世를 추가로 배양하였다.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선배 학자들을 두루 모셨을 뿐만 아니라, 지역 학자들과 혈연·학연·지연 등으로 깊이 얽힌 사람들을 추가로 배향함으로써, 사실상 상주 인근 지식인 사회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서원으로 역할을 하였다. 경천대와 함께 낙동강변의 대표적인 뱃놀이와 문학작품의 창작 공간으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였고 소통의 공간이 되었다.

수창은 둘이 또는 여럿이 연관되는 내용을 읊어서 주고받는다. 그러면 서로 疏通하게 된다. 벗의 소식과 心懷를 알아서 즐겁고, 酬唱할 시를 짓는 것이 즐겁다.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니 이보다 좋은 일은 없다. 자천대는 소통의 공간이자 작품 장작을 위한 공간이었다.

解纜自天臺下灣
君仙若在方壺間
波連浩渺無邊海
雲繞滄茫不在山
水色遙涵天影闊
笛聲清伴棹歌還
滿江魚鳥休驚散
他日重來是舊顏

자천대 밑 물굽이에서 닻을 푸니
못 신선들 마치 방호 사이에 있는 듯하네
물결은 아득히 먼 끝없는 바다로 이어졌는데
구름은 넓고 아득히 에워싸 산을 머물게 아니하네
물빛 아득하니 하늘 그림자 잠겨 광활하고
피리소리 맑으니 뱃노래 돌아와 짝하네.
온 강의 고기와 새 놀라 흩어지지 마라
다른 날 다시 오면 곧 구면될지니²¹⁾

黃翊休(1719-1783)의 작품이다. 자천대의 경치가 신선이 사는 곳과 같다는 것이다. 시어 ‘방호’는 신선이 산다는 전설상의 산 이름으로 선계가 경천대에 펼쳐져 있다. 신선을 본 적은 없어도 신선이 사는 곳이 이러한 승경일 것이다. 풍진 세상에서 벗어나 수려한 자연을 만나 종신토록 소요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것이다. 선계와도 같은 이곳을 다시 찾아올 것이라 다짐하면서 마무리한다. 물결, 구름 덮인 산, 광활한 하늘 그림자 등의 풍경을 시선이 닿는 대로 옮겨와서 사실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거기다 피리 소리와 뱃노래라는 청각적 요소를 더하여 뱃놀이

21) 黃翊休, 〈次合江亭韻 以道泛月時景〉, 권태을 역주, 앞의 책, 254쪽.

의 흥겨움이 물씬 전해지고 있다.

幽鬱今來得暫痊	답답하여 지금 오니 잠시 병이 낫게 되고
滄洲秋夜夜無邊	창주의 가을은 가없는 밤이로다.
靑龍祠下楓千樹	청룡 사당 아래에는 단풍나무 천 그루이고
白鷺灘頭月一船	백로 여울머리에는 달빛 가득 실은 배라네.
談笑衣冠江左右	이야기하며 웃는 선비들의 좌와 우에 강이라
沿洄咫尺界凡仙	물길 따라 오르락내리락 지척 간에 범인과 신선의 경계라네
不妨留待自天勝	머물며 기다린 자천의 승경을 방해하지 마오
有隕明年頌自天	내년에 자천을 노래할 일이 떨어짐이 있을 것이라네 ²²⁾

도남서원에 모였다가 바람이 불어 끝내 자천대에 오르지 못하고 뱃놀이를 마친 상황을 지은 작품이다. 柳鼎文(1782-1839)²³⁾의 조부 柳道源·부친 柳範休는 李象靖의 문인으로 당시 안동유림을 대표하는 학자들이었다.

‘滄洲’는 원래 물가의 경치 좋은 곳을 뜻하는데, 南朝 시대 齊나라의 시인 謝朓가 宣城太守로 나가서 창주의 정취를 마음껏 누렸던 고사로 주로 경치가 좋은 은자의 거처를 의미한다. 답답함에 찾은 경천대는 정서적 해방감을 주었으며 그곳의 정취를 한껏 누리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끝이 없는 밤 가을 하늘, 청룡 사당의²⁴⁾ 단풍나무, 달빛 가득 실

22) 柳鼎文, 〈抵道南書院, 會葛庵李先生請伸事也. 時江月正中, 挈舟沿洄於詠歸靑龍之間, 泊自天臺下, 風作過涼不可上, 遂悵然而罷〉『壽靜齋集』 권2; 『한국문집총간』 117, 423쪽.

23) 柳鼎文(1782-1839): 본관은 全州. 초명은 齊文, 자는 耳仲, 호는 壽靜齋. 공조참의 柳升鉉의 증손이다. 아버지는 안변부사 柳範休이며, 어머니는 의성김씨로 金江漢의 딸이다. 1805년(순조 5)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자 이후 과거를 단념하고 학문에 주력하여 1834년(헌종 4)에는 문학과 덕망으로 惠陵參奉에 천거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는 못하였다. 아버지가 서울로 벼슬살이를 위해 떠나자 종조할아버지 柳長源에게 나아가 학업을 익혔다. 1796년 여름에는 아버지를 高城임지에서 시종하며 柳晦文·南漢朝와 함께 금강산 유람에 동행하였다.

24) 경북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비봉산 중턱에 있는 靑龍寺가 아닌가 한다. 1674년(현종 14)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중창과 관련된 기록이 인근 道南書院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은 배 등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고 선비들의 웃음소리를 느끼면서 시각, 청각을 동원하여 경천대의 경관과 당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경천대는 문인들의 文會를 위한 공간이었고 특히 선유의 공간에서 빠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상주 지식인의 유대관계를 위한 곳으로 이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 즉 소통의 공간이었다. 이들은 영남의 퇴계 학맥의 영향에 있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학맥의 결속력을 높이 고자 하였다. 그리고 출사보다는 산림에 은거하여 학문에 전념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 곧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고, 출사보다는 향촌교화와 후진 양성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다. 다음 장의 은일의 공간으로 인식한 것과 통한다.

IV. 기억으로 소환된 靄潭과 은일의 공간

고려 말에 등장한 사대부계층은 조선 초에 들어 조정으로 진출한 관료와 산림에 묻혀 학문탐구에 매진한 처사로 그 개념이 분화되었으며, 처사들이 추구했던 실천적 도학이 학문적 우위를 점하면서 조선 중기 이후 산림 처사는 최고의 숭상 대상이 되었다. 특히 퇴계의 학문을 탐구 대상으로 삼았던 영남 사림들 중에는 출사보다 산림에 은거하여 학문에 전념하였는데 상주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천대가 있는 상주가 商山이라 하여 ‘商山四皓’²⁵⁾ 같은 덕 높은 은사가 살 만한 선비의 고장·신선의 고을로 일컬어진 것과 상통한다. 또한 명·청 교체기에 급박하게 변하여 위기를 경험했던 채득기가 세상을 피해 은거한 곳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野艇受人恰兩三
從容派上洛江潯

거룻배에 적당히 두 세명을 태우고
조용히 낙강가를 거슬러 올라가네.

25) 秦나라 말에 난세를 피하여 山西省 商山에 숨은 東園公·夏黃公·甬里先生·綺里季 네 사람을 가리키는데, 모두가 수염과 눈썹이 희었기 때문에 商山四皓라 불렸다.

奇巖隱見鼇鼇窟
幽徑逶迤花竹林
天下盡含周顥淚
石間猶帶魯連心
移舟更入水中穴
欲聽神龍時一吟

기암에는 자라와 악어의 소굴이 숨었다 나타나고
오솔길에는 꽃과 대나무 숲이 구불구불 이어졌네.
하늘 아래에 주의의 눈물을 가득 머금고
바위 사이에 노중련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배를 옮겨 다시 물 복판 굴속으로 들어가니
신룡이 때때로 읊조리는 소리를 듣고자 하네.²⁶⁾

淸臺 權相一(1679-1759)²⁷⁾이 吳致重과 姜壽甫와 함께 배를 띄워 자천대를 유람하면서 지은 작품이다. 전반부는 배에서 바라보는 경천대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눈앞에는 자라와 악어의 모양을 한 기이한 바위와 꽃과 대나무가 즐비한 오솔길이 펼쳐져 있다. 시어 ‘周顥’은 삼국 시대 쑤나라 사람으로 역사가들이 신하로서 충절을 다한 자로 평가하고 있다. ‘魯連’은 魯仲連으로 전국 시대齊나라 政客으로 높은 지조를 지녔던 인물로 유명하였다. ‘周顥’와 ‘魯連’을 인용해서 병자호란, 명의 멸망 등에 절망스러운 순간을 경험했던 채득기를 회상하고 있다. 그가 풍진 세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 살며 은거했던 그 삶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人間回首劫灰飛
春色依然采采薇
別起樓臺明府至
獨留碑碣主人非
空添志士山河淚
若見皇朝日月輝
江上客來猶弔古
好音誰復慰西歸

인간 세상 머리 돌리니 오랜 세월 재가 날리는데
봄빛은 의연하니 고사리 무성하네
따로 누대를 세워 명부(지방관)가 이르러
오직 비문에 머물렀건만 주인이 아니라네
뜻있는 선비는 부질없이 더하여 산하에서 눈물 흐르고
황조를 본 것 같은데 해와 달은 빛나구나
강가에 나그네가 와서 옛일을 위로하는 것 같고
좋은 소식으로 누가 다시 서쪽으로 돌아감을 위로하리오.²⁸⁾

26) 權相一, 〈與吳致重, 姜壽甫, 乘小舟往遊自天臺. 石面, 刻大明天地, 崇禎日月八字〉, 『淸臺集』 권1; 『한국문집총간』 61, 219쪽.

27) 淸臺 權相一(1679-1759): 본관은 안동, 자는 台仲, 호는 淸臺이다. 1710년(숙종36)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만경 현령, 우부승지,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李萬敷, 吳致重, 黃翼再, 李國春, 洪相朝, 趙天經 등과 교유하였다. 저서로는 『淸臺集』이 있다.

28) 趙天經, 〈次地主李侯 垓 自天臺韻〉, 『易安堂集』 권1; 『한국문집총간』 74, 21쪽.

趙天經(1695-1776)은 黔澗 趙靖²⁹⁾ 후손이며 창석 이준의 외후손이다. 1748년 퇴락한 무우정을 상주목사 이협이 중건하였는데 이협이 자 천대를 읊은 시에 차운한 작품이다. ‘劫灰’는 한 세상이 멸망할 때에 일어난다는 큰불의 재로 대재난을 겪은 흔적을 말한다. 1-4구는 오랜 세월이 지나 재로 변해 가지만 자연은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퇴락한 무우정을 이협이 중건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 구절은 『시경』 「匪風」에서 인용한 대목으로 비풍은 회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회나라는 주나라의 제후국인데 나라가 작고 국력이 약하니, 주나라의 도를 가져와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은 마음을 반복적으로 노래한 것이다. 곧 나라가 쇠망하는 것을 슬퍼하고 회나라 사람이 주나라를 그리워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누가 고기를 요리하는 고, 작은 가마솥과 큰 가마솥을 씻어 주리라. 누가 장차 서쪽으로 돌아가느냐, 좋은 목소리로 위로하리라.[誰能烹魚, 漑之釜鬻. 誰將西歸, 懷之好音.]”라고 되어 있는데 ‘西歸’는 주나라로 돌아가는 것으로 회나라가 주나라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소식은 주나라 사람이 와서 회나라를 난을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에서는 과거의 명나라를 그리워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묻어난다.

夜夜冬靑哭杜鵑
新亭高處憶前賢
滄桑獨有孤臺石
天地難忘萬曆年
依舊雲煙生一壑
至今風雨戰三川
芳薇采采吾將祭
欲向東溟配魯連

밤마다 동청에는 두견의 곡소리요
新亭 높은 곳에서 선현을 생각하네.
상전벽해에도 오직 외로운 대에는 돌만이 있고
천지세상 일 중에 만력 연간을 잊기 어렵네.
예전의 운하는 온 골짜기에 피어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풍우는 삼천을 흔든다.
향기로운 고사리 꺾어서 나는 장차 제사지내고
동쪽 바다로 향해 노중련과 짝이 되고 싶네.³⁰⁾

29) 趙天經(1695-1776): 黔澗 趙靖(1555~1636)의 5세손이다. 조덕윤의 손자 趙自愼의 아들이다. 息山 李萬數의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26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학문과 문학으로 일관하여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30) 趙天經, 〈次李夢瑞獻慶自天臺韻, 夢瑞卽伯宗之子, 時爲金泉察訪〉, 『易安堂集』 권1; 『한국문집총간』 72, 22쪽.

趙天經의 시이다. ‘冬靑’은 겨울에도 늘 푸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宋나라가 망하자, 元나라 사람이 紹興에 있는 송나라 王陵들을 모두 발굴하여 遺骸를 없애 버리려고 할 적에 송나라 義士 唐珏이 몰래 그 유해들을 수습하여 蘭亭山에 장사 지내고 또 송나라 故宮에 있던 冬靑樹들을 그 묘 위에 옮겨 심었던 데서 온 말이다. ‘杜鵑’은 옛날에 蜀帝 杜宇가 원통하게 죽어서 변화했다는 새 이름인데, 이 새는 특히 봄철이면 밤낮으로 피눈물이 흐를 때까지 슬피 운다는 전설이 있다. ‘新亭’은 西晉 말년에 중원이 함락되자 江南으로 피난을 갔는데, 이때 신정에서 술자리를 베풀 적에 신하들이 둘러앉아 마주 보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린 고사이다. 모두 국가가 멸망의 위기에 처한 것을 탄식하며 슬퍼하는 뜻을 표현한 말이다. 작가는 선현의 흔적과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채득기를 절의와 마주한 것이다. 만력연간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겪었던 일은 잊을 수 없다. 그래서 그의 행적과 절의를 길이 보존하고 존송하고자 하는데 ‘魯連’ 즉 채득기를 닮으려는 마음을 끌어내고 마무리한다.

落日來尋處士臺
大明年號此中鬼
太歲又丁涓灘暮
江流東下使人哀

해질녘 처사의 누대를 찾아오니
대명 연호가 이 속에 우뚝하구나
태세가 또다시 군탄으로 저물어가니
강류 동쪽 가의 使人을 슬프게 하네³¹⁾

制庵 鄭象履(1774-1848)³²⁾ 우복 정경세의 7세손으로 산림처사로 살았다. 경천대를 찾아보니 경천대비에 쓰인 ‘大明天地, 崇禎日月’ 여덟 글자가 우뚝 남아 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외면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시어 ‘군탄’은 干支가 申에 해당하는 해이다. 朱子가 慶元 말에 宋나라

31) 鄭象履, 〈登自天臺 蔡處士雲潭築〉, 『制庵集』 권1; 『한국문집총간』 115, 441쪽.

32) 鄭象履(1774~1848): 자는 중소, 우복 정경세의 7세손으로 증조는 주원이며, 부친은 익노이다. 우복 정경세이래에 경학과 문학을 전수하며 산림처사로 살았다. 당대 석학이었던 損齋 南漢朝를 비롯하여 林下 李敬儒, 皓隣 姜世白 등이 나이가 많았으나 교유하였고 白下 黃磻老, 兢齋 姜世揆, 修溪 李升培 등과 벗하여 학문을 논하고 문학을 창작하였다.

太祖가 개국한 해인 경신년을 맞아 “내년의 태세가 또다시 군탄이구나. [明年太歲又涸灘]”라고 읊어 상심을 나타낸 시에서 보인다. 시에서 군탄의 해는明年라가 망한 해인 갑신년이 다시 돌아온 것을 말하는데 1824년임을 추측할 수 있다. ‘申’의 해가 돌아오니 역사적 사실을 회상하면서 슬픔에 잠기게 된 것을 묘사하고 있다.

경천대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채득기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상주지역은 낙동강 상류인 안동지역과 전통적으로 밀접한 인맥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퇴계의 제자인 류성룡은 상주에서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그 제자들이 스승에게서 이어받은 선비정신이 일상화하던 지역으로 인식된 것에서 또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V. 맺음말을 대신하여 - 幽興의 너머를 상상하다

경천대가 하나의 인물과 하나의 공간/경관이 같이 기록되고 기억되는 것은 역사 속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는 않지만, 그 공간에 대한 수채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집단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하나의 기억이 다른 기억과 어우러지면서 공유되고, 그 공유가 다시 그 공간의 표상이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경천대와 채득기의 관계가 그러하다.

경천대는 船遊에의 염원을 담은 연대적 소통의 공간이었으며, 우담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면서 은일을 회구하던 공간이었다. 한시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경천대는 물상으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삶과 경험을 공유하는 하나의 장소가 되었다. 장소가 된 경천대는 하나의 경관에 머물지 않고, 유림의 감성으로 착색된 역사적 장소가 되었으며, 끝내 물상과 인간이 하나로 화합하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게 되었다. 이후 幽興의 공간에 머물지 않는 삶의 특정한 指向을 간직한 의지적 공간으로 공유되고 기억된 경천대가 갖는 또 다른 상상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섬세

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

商之山兮巉岷	상산 우뚝한 곳에
掃一邱兮淨光	언덕 하나 깨끗하게 쓸었으니
數杯兮九天	드높은 구천에 몇 움큼이요
十笏兮八荒	드넓은 팔방에 열 자 정도지만
羌不騫兮萬世	아, 만세 동안 훼손되지 않으리니
近帝居兮雲鄉	천제의 거소인 운향에 가깝다네
山有橘兮澗有蘋	산에는 귤이 있고 시내에는 마름풀 있어
穆將愉兮三皇	공경히 장차 세 분 황제를 기쁘게 한다네
潔齋俟兮虔求	청결히 재계하고 기다려 정성스럽게 구하나니
神所遊兮無方	신령이 노니는 곳은 일정한 방향이 없다네
瞻九土兮腥羶	중국 땅을 돌아보면 오랑캐의 노린내 나지만
獨一隅兮扶桑	유독 한 구석에 부상이 있어
濯東海兮滔滔	도도한 동해가 깨끗이 씻어 주고
照日月兮煌煌	빛나는 일월이 비추어 주네
霓爲旌兮雲爲車	무지개를 깃발 삼고 구름을 수레 삼아
靈之來兮洋洋	신령이 오심이 성대하다네
風飄兮泉冽	바람은 가벼이 불고 샘물은 차가우니
地久兮天長	하늘과 땅처럼 영원하리라
天長兮地久	하늘과 땅처럼 영원하리니
懷美人兮不能忘	아름다운 이 그리워하며 잊지 못하네

이 시는 韓章錫의 〈擎天臺辭〉이다. 끝으로 〈병서〉에 의하면, 이 시는 壺翁 李景南이 명나라가 쇠망하자 상산 경천대에 올라가 제터를 마련하고 명나라 태조, 신종, 의종을 위하여 제사를 올린 뒤 지었다고 했다. 스스로 명의 遺民임을 자처하고 있기에 망국에 대한 아쉬움에는 비장미도 흐른다. 사실 내용은 그닥 참신하다고 하기엔 곤란하다. 그렇지만 이 시는 경천대가 갖고있는 의미의 영역을 하늘과 닿는 제천의 뜻까지 확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제1구에서 6구까지는 상산 자락에 우뚝 솟되 맑고 깨끗하게 트였다면서 경천대가 하늘과 닿은 곳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7구에서 10구까지는

경천대가 정결한 곳이요, 신령이 올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제11구에서 14구까지는 異族이 차지하여 누린내가 나는 중원에 비해 조선은 일월이 비치는 곳임을 보이며, 제15구에서 20구까지는 그리워하는 이(제향의 대상)가 보이지 않으니 영원히 그리워할 것이라는 다짐을 담고 있다.

내용적으로 전형적인 大明義理에 충실한 시라고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에서 경천대를 통해 작자가 도모하는 몇 가지 상징적 확대를 추려낼 수 있을 듯하다. 하나는 경천대를 하늘과 통하는 제단이 놓일 수 있는 신령한 장소로 간주하고, 둘째는 무너진 중원과 다른 동방의 정결한 장소 가운데 하나로 비정하며, 셋째는 그리워하는 신령이 찾아와 ‘天長地久’할 것을 기원하는 회구의 장소로 확정하였다는 것이다. 즉 유선을 즐기며 은일을 추구하던 공간이 이제 정결하고 환하며 하늘과 만날 수 있는 신령한 장소가 된 것이다. 비록 〈擎天臺辭〉에서 경천대는 제향의 공간으로 설정되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시적 공간으로의 상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경천대와 같은 景觀을 위주로 한 공간은 대개 幽興의 공간이나 玩賞의 장소로 활용되곤 했다. 그러나 그 공간은 이를 넘어 또 다른 상상의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경천대는 물론이요 상주 한문학이 보유한 상상의 자산에 대한 차분한 심미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³³⁾

※ 이 논문은 2022년 5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6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33) 이 논문을 위해 고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 특정한 경관에 대한 제영이 갖는 성격은 작가별로든 시대별로든 다양한 모습을 지닐 터인데, 본고는 논지의 명징성을 위해 단순화한 한계가 있다. 차후 시대나 작가의 변화에 따른 공간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 혹은 반복하는지에 대한 논의 보완을 약속드린다.

참고문헌

- 蔡得沂, 『君臣言志錄』, 규장각 장서
李植, 『澤堂集』, 『한국문집총간』 88.
金商憲, 『淸陰集』, 『한국문집총간』 299.
柳珍, 『修巖集』, 『한국문집총간』 19.
李滿敷, 『息山集』, 『한국문집총간』 178.
孫萬雄, 『野村集』, 『한국문집총간』 46.
柳鼎文, 『壽靜齋集』, 『한국문집총간』 117.
權相一, 『淸臺集』, 『한국문집총간』 61.
趙天經, 『易安堂集』, 『한국문집총간』 115.
鄭象履, 『制庵集』, 『한국문집총간』 115.
- 권태을, 『尙州漢文學』, 文昌社, 2002.
권태을, 『낙동강범월시』, 아세아문화사, 2007.
권태을 외7, 『낙동강을 품은 상주문화』, 민속원, 2012.
- 洪在炘, 「霧潭 蔡得沂와 鳳山曲 研究 : 丙子胡亂을 背景한 歌辭의 新資料」, 『語文學』, 韓國語文學會, 1959.
洪在炘, 「霧潭 蔡得沂와 〈天臺別曲〉(〈鳳山曲〉)에 對하여: 丙子胡亂을 背景한 歌辭의 新資料」,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1960.
권태을, 「낙강범월시회의 사적고찰」, 『상주산업대논문집』 32, 상주산업대, 1990.
김기탁, 「우담 채득기의 누정시가 연구」, 상주대학교 상주문화연구 1, 1991.
권태을, 「낙강시회연구- 상주권 낙동강 중심으로」, 『상주문화연구』 2, 상주산업대 상주문화연구소, 1992.
강구을, 「霧潭 蔡得沂의 生涯와 詩世界 研究」, 『東漢文學』 20, 대동한문학회, 2004.
이재근, 「명승지정 평가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상주 경천대를 중심으로-」, 『産業科學研究』, 상명대 산업과학연구소, 2004.
권태을, 「자천동산수록고」, 『상주문화』 18, 2008.

- 권태을, 「우담 채득기의 군신언지록고」, 『상주문화연구』 18, 2008.
- 황위주, 「낙동강 연안의 유람과 창작 공간」, 『漢文學報』 18, 우리한문학회, 2008
- 이유진·김수진·심우경, 「우담 채득기의 경천대 경영에 나타난 문화경관 요소의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 한국전통조경학회, 2010.
- 이유진, 「상주 경천대 일원의 명승지정을 위한 자연, 문화 경관 해석」, 고려대 석사논문, 2011.
- 손유진, 「『壬戌泛月錄』에 나타난 空間 認識의 樣相과 意味」, 경북대 석사논문, 2011.
- 박영주, 「백의 처사의 은일을 노래한 우담 채득기」, 『오늘의 가사문학』, 고요아침, 2020.
- 송재연, 「가사 〈天臺別曲〉에 구현된 자연의 형상과 의미」, 『문학과 환경』 20, 문학과 환경학회, 2021.

Abstract

Sangju Gyeongcheondae(擎天臺) and Its Meaning as
Poetic Space _
with Gyeongcheondae Sino-Korean Poetry Collection

Kim, Seung-ryong* · Choi, Geum-ja**

Gyeongcheondae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scenic spots in the basin along the Nakdong River. In the past, there are records of many poets and calligraphers visiting the Gyeongcheondae area and enjoying the scenery by singing or writing poetry. Aside from its splendid scenery, Gyeongcheondae is the place where the famous general Jeong Gi-ryong (鄭起龍, 1562-1622) trained in his youth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Joseon (1592-1598). It is also the hiding place of Udam Chae Deuk-gi (蔡得沂, 1605-1646) who accompanied Crown Prince Sohyeon and Prince Bongnim when they were taken as political hostages to Shenyang in the Qing Dynasty due to the Qing Invasion of Joseon. In particular, Gyeongcheondae was recognized only as a sacred place for rituals for rainfall or a scenic spot with beautiful scenery until its encounter with Chae Deuk-gi. Then, after the Qing Invasion of Joseon in 1636, after Chae Deuk-gi settled in Jacheon-dong, Gyeongcheondae became widely known to the world and it was recognized together with Chae Deuk-gi.

Gyeongcheondae Sino-Korean poetry works are first created because of the boating culture that opened around the Nakdong River.

*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Pusan National University

** Completed the doctoral course on Sino-Korean literatur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record of writing poetry while boating in the Nakdong River of Sangju covers a period of 666 years from Yi Gyu-bo(李奎報) in the year of Byeongjin (丙辰年, 1196) to Yu Ju-mok(柳疇睦) in the year of Imsul (1862), leaving a total of 51 poems. According to the record, the ‘Sangsanseon Poetry Party(商山船遊詩會)’ is a representative example. This boating poetry party was held in a section covering a distance of about 30-li from Gyeongcheondae, known as the First Scenery of Sangju to Gwansuru(觀水樓) Pavilion via Danamseowon Confucian Academy(商山船遊詩會) in the southeast, and the party was held a total of 8 times during 171 years from 1607 to 1778.

This boating poetry party centered on Changseok Yi Jun (蒼石 李竣, 1560-1635) became a model for the Nakgang Poetry Party. Following this tradition, Gyeongcheondae was a space for literary clubs for literati, especially it was second to none as a pleasure boating space. In addition, it was a space for communication between Sangju intellectuals, an important medium that connected them together.

Second, many literati recall Chae Deuk-gi and leave works that contain his spirit. In other words, when Chae Deuk-gi experienced an imminent crisis during the Ming-Qing transit period, Gyeongcheondae was described as a place where he hid from the world by keeping his faithfulness to Ming. Sangju, where Gyeongcheondae is located, is called Sangsan(商山) so it was compared to “Sangsansaho (商山四皓, The Four Sages of Shang Shan)” where scholars and hermits with high morals and deities deserve living. Sangju is an area with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surrounding Andong area. For example, Ryu Seong-ryong(柳成龍), a disciple of Toegye, trained disciples in Sangju, who recognized Sangju as an area where the scholarly spirit inherited from the master was prevalent.

keywords :

Gyeongcheondae(擎天臺), Jacheondae(自天臺), Sangju(尙州),
Udam(雲潭), Chae Deuk-gi(蔡得沂), boating(船遊), Toegye(퇴계),
Lee Jun(李垞)

□ 擎天臺有關漢詩輯錄

번호	성명	호	작품명	출처
1	姜樸 (1690~1742)	본관晉州. 자子淳, 호菊圃.	渡尙山峽津 望白天臺	菊圃集 권2
2	高聖謙 (1810~1886)	본관開城. 자穉希, 호甬里.	詩○雲達山 和李驪應 韻	甬里集 권4
3	權相一 (1679~1759)	본관安東. 자台仲, 호淸臺, 시호僖靖.	冒雨登白天臺	淸臺集 권1
			與吳致重 姜壽甫 樂小 舟往遊白天臺【石面 刻大明天地 崇禎日月 八字】	淸臺集 권1
			謹次地主李侯 垓 白天 臺韻二首	淸臺集 권3
			金正字懋叔 履常 來訪 因憶開湖形勝 有二詩	淸臺集 권4
			進士金公墓碣銘 並叙	淸臺集 권12
4	金尙憲 (1570~1652)	본관安東. 자叔度, 호淸陰·石室山人· 西礪老人, 시호文 正.	零潭十詠 蔡別坐得沂 新居也	淸陰集 권13
5	柳鼎文 (1782~1839)	본관全州. 자耳中, 호壽靜齋.	抵道南書院 會葛庵李 先生請伸事也 時江月 正中 挈舟沿洄於詠歸 青龍之間 泊白天臺下 風作過涼不可上 遂悵 然而罷	壽靜齋集 권2
6	朴泰茂 (1677~1756)	본관泰安. 자春卿, 호西溪.	遊淸涼小白山記行	西溪集 권1
7	宋明欽 (1705~1768)	본관恩津. 자晦可, 호櫟泉, 시호文元.	與權亨叔金伯愚 遊自 天臺 舟下合江亭 辛巳	櫟泉集 권3
			年譜	櫟泉集 권19

尙州 擎天臺와 시적 공간으로서의 의미(김승룡·최금자)

8	孫萬雄 (1643~1712)	본관 慶州. 자 敵萬, 호 野村.	題自天臺酬唱帖	野村集 권1
9	吳熙常 (1763~1833)	본관 海州, 자 士敬, 호 老洲.	年譜	老洲集 권 27
10	李萬敷 (1664~1732)	본관 延安. 자 仲 舒, 호 息山.	君臣言志錄序	息山集 권 17
			上洛文會記	息山集 권 17
11	李植 (1584~1647)	본관 德水. 자 汝固, 호 澤堂·남궁南宮外 史·澤癯居士. 시호 文靖.	舞雩亭記	澤堂集 권5
12	李沃 (1641~1698)	본관 延安, 자 문文 若, 호는 博泉.	洛江酬唱帖序	博泉集, 補 遺 권1
			自天臺	博泉集, 補 遺 권2
13	鄭象履 (1774~1848)	본관 晉陽. 자 仲素, 호 制庵.	登自天臺 蔡處士零潭 築	制庵集 권1
14	趙天經 (1695~1776)	본관 豐壤. 자 君一. 호 易安堂.	次地主李侯【垓】自天 臺韻	易安堂集 권1
			酬李掌令伯宗 齊華 遊 自天臺韻 李謫居本州	
			次李夢瑞【獻慶】自天 臺韻【夢瑞卽伯宗之子 時爲金泉察訪】	
			追次自天臺韻寄李伯宗	
15	韓章錫 (1832~1894)	본관 淸州. 자 穉綏, 穉由, 호 眉山, 經 香, 시호는 孝文이 었으나, 1910년 文 簡으로 改諡.	擎天臺辭 并序	眉山集 권1

1. 自天臺 _ 李沃¹⁾

纔出城闌卽別賓 성문을 나서자마자 별환에 나아가고
遨頭選暇辦優閒 날을 택한 오두(고을 수령)는²⁾ 넉넉히 한가로움에 힘쓰네
蜿蟺自作層三羸 완선이³⁾ 자연스레 층 셋을 곧게 만들어
題品爭稱第一山 품평하니 다투어 제 일의 산이라 칭찬하네
敢許全家超世外 감히 허여한 온 집은 세상 밖에서 뛰어나고
偶携同志拔塵間 우연히 함께한 동지는 풍진에서 빼어나네
相隨步履來沙渚 나막신 걸음으로 서로 따라 모래밭에 오고
短棹澄江待月還 맑은 강물에 짧은 노 저어 달이 돌아오길 기다리네

2. 題自天臺酬唱帖 _ 孫萬雄⁴⁾

자친대 수창첩에 짓다.

-
- 1) 李沃(1641~1698): 본관은 연안, 자는 文若, 호는 박천이다. 1660년(현종1)에 등과하여 1677년(숙종3)에 부제학이 되었다. 이듬해 서인의 영수 송시열의 처벌 문제로 남인이 淸南·濁南으로 분열되자, 청남에 속하여 송시열의 처분을 종묘에 고하고 극형에 처하자고 주장하다가 탁남의 영수 許積 등의 반대로 削職되고 北靑에 유배되었다. 그 후 기사환국으로 풀려나 1692년에 예조 참관에 이르렀다. 『박천집』은 33권 5책의 목관본으로 1720년에 아들 李萬維가 龍城通判으로 있을 때 편찬하고 간행하였다.
- 2) 遨頭: 蜀中の 풍속에 太守가 놀이하러 나가면 여자들이 길 옆에서 나무 평상에서 구경하는데, 그것을 오상(遨狀 노는 평상)이라 하므로 태수를 遨頭라 한다. 정월에서부터 나가 놀기를 시작하여 4월이 되면 그만둔다.
- 3) 蜿蟺: 환형동물 貧毛類에 속한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몸은 가늘고 긴 원통 모양이며, 반지 같은 마디로 나누어져 있다. 보거나 들을 수는 없으나 빛과 진동에 민감하다. 부패한 생물체를 먹는데 이때, 많은 양의 흙과 모래, 작은 자갈 따위도 함께 섭취하였다가 내보낸다. 같은 개체에 암컷과 수컷의 생식 기관이 함께 존재하는 雌雄同體의 생물이지만, 한 개체의 알은 다른 개체의 정자에 의하여 수정된다. 전 세계에 걸쳐 습기와 유기물이 충분한 흙 속에서 산다.
- 4) 孫萬雄(1643~1712): 본관은 慶州, 자는 敵萬, 호는 野村이다. 조부 樵이 복재 정국성의 사위가 되어 상주 울리로 이거해옴으로써 야촌도 이곳에서 태어났다. 1669년 생원이 되고 이어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은 부윤, 목사에 이르렀다. 無添齋 鄭道應의 문하에서 수업하였으며 당시 博泉 李沃과 瓶窩 李衡祥등과 교유하였다.

諸公標致出塵寰 여러 공의 풍격은 티끌 세상에서 빼어나고
暇日淸遊特地閑 여가 날의 청류는 땅의 한가로움에서 남다르다.
道院巍巍臨洛水 도원(서원)은 높고 높이 낙수(낙동강)에 임해 있고
天臺羸羸擅商山 천대는 우뚝 솟아 상산(상주)에 으뜸이네
佳篇迭唱雲霞裏 좋은 시편은 운하 속에서 주고받으며
勝蹟流傳翰墨間 명승 고적은 필묵 사이에서 떠돌아 전해지네.
自恨疎慵違盛會 스스로 성글고 게을러 성대한 모임과 멀어짐이 한스러워
夢魂時逐逐鷗還 꿈 속의 님은 때때로 갈매기 따라 돌아오네.

3. 冒雨登自天臺 _ 權相一⁵⁾

비를 무릅쓰고 자천대에 오르다

名區多在洛江隈 이름난 곳이 낙강 굽이에 많이 있고
翠壁蒼巖面面開 푸른 벼랑, 바위가 면면이 펼쳐 있다네
四馬行尋道院路 필마로 도원을 찾아가던 길인데
雨中先訪自天臺 빗 속에도 먼저 자천대를 찾는다.

4. 與吳致重, 姜壽甫, 樂小舟往遊自天臺. 【石面, 刻大明天地, 崇禎日月八字】 _ 權相一

吳致重, 姜壽甫와 작은 배를 타고 자천대에 가서 노닐다. 【石面に
‘大明天地, 崇禎日月’ 여덟 글자가 새겨져 있다】

野艇受人恰兩三 거룻배는 마음 내어 두서너 명을 태우고
從容派上洛江潯 조용히 낙강가를 거슬러 올라가네.
奇巖隱見蘿蘿窟 기암에는 자라와 악어의 소굴이 숨었다 나오고
幽徑逶迤花竹林 오솔길에는 꽃과 대나무 숲이 구불구불 이어졌네.

5) 權相一(1679~1759): 본관은 안동, 자는 台仲, 호는 淸臺이다. 1710년(숙종36)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만경 현령, 우부승지,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李萬敷, 吳致重, 黃翼再, 李國春, 洪相朝, 趙天經 등과 교유하였다. 저서로는 『淸臺集』이 있다.

天下盡含周顗淚 하늘 아래에 주의의⁶⁾ 눈물을 가득 머금고
石間猶帶魯連心 바위 사이에 노중련의⁷⁾ 마음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移舟更入水中穴 배를 옮겨 다시 물 복판 굴속으로 들어가서
欲聽神龍時一吟 신룡이⁸⁾ 때때로 읊조리는 소리를 듣고자 하네.

5. 謹次地主李侯 峽 自天臺韻二首 _ 權相一

지주 이협의 자천대 운을 공경히 차운하다. 2수

洛江澄瀾白鷗飛 낙강이 맑고 넓으니 갈매기가 날고
夜雨西岡長綠薇 밤비에 서쪽 능성의에는 푸른 고사리 자라네
誰爲人間扶大義 누가 인간을 위하여 대의를 부양하는지
翁於心裏見眞非 늙은이 마음에는 참인지 아닌지를 보이네
松壇忽起丹青閣 송단에 갑자기 단청각이 세워지고
石面如生日月輝 석면이 생시처럼 일월에 반짝이네
表節遺墟應有意 드러난 절개, 남겨진 터에는 응당 뜻이 있을테니
匪風千古咏而歸 비풍시를⁹⁾ 천고토록 읊조리며 돌아가리라
携家鹿門子 녹문자가¹⁰⁾ 가족을 이끌고

-
- 6) 周顗: 삼국 시대晉나라 사람으로 자는 伯仁이다. 王敦과 溫嶠 등의 舉兵을 反亂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제의를 거절하고 바른말을 하다가 결국 그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역사가는 그를 신하로서의 忠節을 다한 자로 평가하였다. 『晉書』 卷69 〈周顗列傳〉
- 7) 魯連: 魯仲連으로, 전국 시대의 제나라 사람이다. 그가 秦나라를 황제로 섬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일을 말한다. 그가 趙나라에 가 있을 때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의 서울인 邯鄲을 포위했는데, 이때 魏나라가 장군 新垣衍을 보내 진나라 임금을 천자로 섬기면 포위를 풀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노중련이 “진나라가 방자하게 천자를 僭稱한다면 나는 동해를 밟고 빠져 죽겠다.” 하니, 진나라 장군이 이 말을 듣고 군사를 후퇴시켰다 한다. 『史記』 卷18 〈魯仲連列傳〉
- 8) 神龍: 賢者가 은거하여 자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한나라 賈誼의 〈吊屈原賦〉에, “깊은 못의 신룡이여, 깊이 숨어서 스스로 보전하도다.……봉황은 천 길 높이 날아서, 빛난 덕을 보고 내려오도다. [襲九淵之神龍兮, 沕淵潛以自珍.……鳳凰翔于千仞兮, 覽德輝而下之]”라는 말이 있다.
- 9) 匪風: 『시경』 〈檜風〉의 편명으로 周나라 왕실이 쇠미해가는 것을 서글피하는 시이다.
- 10) 鹿門子: 세상을 피해 숨어 지내는 사람을 말한다. 후한 말엽의 高士 龐德公은 아내와

避地浣花堂 피한 곳이 완화당¹¹⁾이라네.
 石面三綱重 석면에는 삼강을 중히 여기고
 商顏一土光 상산의¹²⁾ 한 선비는 빛나네
 賡詩瀉忠憤 시로 화답하니 충과 분노를 쏟아내고
 辭爵謝塵忙 작록을 사양하니 어지럽고 바쁜 세상 멀리하네
 願發幽潛德 그윽하고 깊은 덕성 일으키길
 諒諸太史郎 태사랑에게 간곡히 고하여 바라노라.

6. 零潭十詠-天臺異石 _ 權相一

우담십영 천대이석

經始應煩鬼斧裁 첨 만들 땀 귀신 도끼 수고롭게 다듬었고
 美名仍借自天臺 아름다운 이름은 또 자천대에서 빌려 왔네
 仙翁一去無人掃 신선 한번 떠나간 뒤 쓸어 주는 사람 없어
 風雨年年長綠苔 풍우 속에 매년 오래도록 푸른 이끼 끼어 있네

7. 金正字懋叔 【履常】¹³⁾ 來訪 因憶開湖形勝 有二詩 _ 權相一

정자 김무숙 【이상】 이 내방하니 개호을 추억하면서 형세와 승경을
 2수 읊었다.

함께 농사 지으며 서로 손님을 대하듯 공경하였다. 그는 벼슬길에 나오라는 荊州刺史 劉表의 청을 거절하고 훗날 처자식을 거느리고 鹿門山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일생을 마쳤다

- 11) 완화당: 成都 浣花溪 옆에 있던 두보의 草堂을 가리킨다.
- 12) 商顏: 尙州를 말하는데 상산사호 같은 덕 높은 은사가 살만한 선비의 고장이라는 뜻이다. 진나라 말기에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여, 東園公, 綺里季, 夏黃公, 甬里先生 등 네 명의 은자가 은거하였던 산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商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을 ‘商山四皓’라고 부른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 13) 金履常(1718~?): 자는 懋叔, 호는 睡窩로 開巖 金宇宏의 후손이며 아버지는 생원 金國采이다. 영조 을해 문과에 급제하여 내외 현직을 거쳐 사헌부 지평을 지냈다. 김국채의 호가 開湖이다.

君自開湖湖上廬 그대, 개호로부터 호수 가에 여막 지었는데
秋來光景問何如 가을 오니 풍광이 어떠한지 묻네
巖巒寂寂雲惟淡 바위 산은 괴괴한데 구름만이 담담하네
蘆荻蕭蕭風自徐 갈대 밭은 쓸쓸한데 바람은 그대로 평온하네
檣渡輕舟依岸小 회목 나룻가의 조각배는 언덕에 의지하기 작고
龍菴清磬出林疎 용암의 맑은 풍경소리는 숲 밖으로 멀어지네
此間眞樂應無限 이곳에서 참 즐거움은 웅당 끝이 없고
好箇江山人讀書 좋구나. 강과 산에서 사람들 책 읽는 소리

湖上遊筇幾往回 호수 가에 유람 지팡이 얼마나 왕래했던가
舞雩亭畔自天臺 무우정¹⁴⁾ 곁에는 자천대가 있구나
峯如玉柱撐空立 봉우리는 옥기둥이 하늘을 떠받쳐 서 있는 듯하고
巖似金盆向水開 바위는 금동이가 물을 향해 열려 있는 듯하네
入戶沙禽聲斷續 집으로 들어서니 물새 소리는 끊어졌다가 이어지고
照簷江月影徘徊 처마가 강 위에 비추고 달 그림자는 배회 하는구나
蒼然上下龜龍石 창연히 위와 아래에는 귀암석이 있고
河洛圖書悅此來 하도와 낙서가 아마도 여기에서 온 것이라네¹⁵⁾

8. 渡尙山峽津，望自天臺 _ 姜樸¹⁶⁾

상산의 협진을 건너며 자천대를 바라보다.

自天臺下水如天 자천대 아래 물은 하늘과 같고
臺上丹楓映水鮮 대 옆에 단풍이 물에 비쳐 아름답구나

14) 舞雩亭: 蔡得沂가 거처하는 곳이다.

15) 낙강: 홍범의 원리가 된 신귀가 출현한 낙수와 연관되어 유도의 정통맥이 끊이지 않는 강이라 상징하고 있다.

16) 姜樸(1690~1742): 본관은 진주, 자는 子淳, 호는 국포이다. 1715년(숙종41)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가 되었으나, 戚臣 閔鎭遠·魚有龜 등을 탄핵하다가 安州에 유배되었다. 1727년(영조3) 經筵에서 尹志述을 탄핵하다가 파직되었고, 그 해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집권하자 기용되어 홍문관의 여러 관직 및 咸從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고, 특히 吳尙濂·蔡彭胤 등의 詩脈을 계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樊巖 蔡濟恭의 부친 蔡膺一, 처삼촌인 吳光運과 깊이 교류하였으며, 채제공이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

一曲平沙鷗鷺靜 한 구비 평평한 백사장에 갈매기와 백로는 고요하고
夕陽歸客上漁船 석양지니 돌아가는 나그네는 고깃배에 오르네

9. 次地主李侯 垓 自天臺韻 _ 趙天經¹⁷⁾

지주 이협이¹⁸⁾ 지은 자천대에¹⁹⁾ 차운하다.

人間回首劫灰飛 인간세상 머리 돌리니 오랜 세월 재가 날리고²⁰⁾
春色依然采采薇 봄빛은 의연히 고사리를 뜯고 뜯네
別起樓臺明府至 따로 누대를 세워 명부(지방관)가 이르렀는데
獨留碑碣主人非 오직 비문에 머무른 것은 주인이 아니구나
空添志士山河淚 뜻있는 선비는 부질없이 더하여 산하에서 눈물 흐르고
若見皇朝日月輝 황조를²¹⁾ 봄 것 같으니 해와 달이 빛나구나
江上客來猶弔古 강가에 나그네가 와서 옛일을 위로하는 것 같고

-
- 17) 趙天經(1695~1776): 검간 趙靖(1555~1636)의 5세손이다. 조덕윤의 손자 趙自愼의 아들이다. 息山 李萬數의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26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학문과 문학으로 일관하여 사림의 존경을 받았다.
- 18) 李垓(1696~1769): 본관은 德水, 자는 大防이다. 증조부는 이조판서 眉江 李景曾, 조부는 대사간 李穡, 부는 통덕랑 李禧楠이다. 1723년(경종 3)에 식년시에 합격하여 생원 진사가 되어 여러 관직을 거쳐 상주 목사를 역임하고,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아들 넷을 두었으며, 재임기간(1746.10~1750.3)에 선정을 베풀고, 문학적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 19) 1746년에 洛江에 있는 自天臺의 舞雩亭을 중수하고, 잔치를 베풀어 시회를 가졌는데, 목사를 비롯하여 權相一 등의 상주 선비들이 참석하였다. 목사 이협이 〈雩亭重修落成韻〉 시에서 “八字碑書勢若飛 至今清節長殷微 臺前日月王正是 山外滄桑世事非 滿地雲陰嗟歲暮 虛庭梅萼自春輝 最憐鳴咽寒江水 猶復朝宗滾滾歸(여덟 자 비석 글씨 날을 듯 기운찬데, 지금도 맑은 절개는 은의 고사리로 자라네. 자천대의 세월은 문왕의 명대 통일에 바르고, 산 밖의 변한 세상일 마다 그르네. 온 세상 뒤덮은 구름에 또 한 해 저물을 탄식하는데, 빈 뜰의 매화 봉오리 절로 봄빛 떠있네. 지극한 슬픔에 흐느끼는 찬 강물은 오히려 쉽 없이 흘러 바다로 모이네)”라고 한 시이다.
- 20) 劫灰: 재라는 뜻으로, 재앙을 뜻하는 불교 용어이다. 하나의 세계가 끝날 즈음에 겁화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다 불태운다고 하는데, 漢武帝 때 昆明池 밀바닥에서 나온 검은 재에 대하여, 인도 승려 竺法蘭이 “바로 그것이 겁화를 당한 재〔劫灰〕”라고 대답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高僧傳』卷1 〈竺法蘭〉
- 21) 皇朝: 명나라를 말한다.

好音誰復慰西歸 좋은 소식으로 누가 서로 돌아감을 다시 위로 하리오.²²⁾

10. 酬李掌令伯宗 【齊華】 遊自天臺韻 【李謫居本州】 _ 趙天經

장령 이재화에게 자천대를 유람한 시에 화답하다. 【이재화는 본주에서 적거중이다.】

憶踏天臺上上頂 자천대 위, 정상을 오를 때를 생각하면서
仍留宿債綠陰時 이에 녹음이 짙은 날을 빌려 유숙하였네
風光人去猶無盡 풍광은 사람과의 거리가 여전히 끝이 없고
遊賞吾衰亦復爲 유상은 나의 쇠락함도 회복하게 하였네
佳水佳山渾似畫 아름다운 물이며 산이며 온전히 그림과 같고
春前春後總宜詩 봄날의 앞이며 뒤며 모두 시가 마땅하다.
蘇叅赤壁眞緣在 소선의 적벽유와²³⁾ 진실로 인연이 있으니
明月扁舟與客隨 밝은 달 뜬 조각배는 객과 함께 따르네

11. 次李夢瑞 【獻慶】 自天臺韻 【夢瑞卽伯宗之子，時爲金泉察訪】 _ 趙天經

이몽서 【헌경】 이²⁴⁾ 지은 자천대에 처운하다. 【몽서는 이백종의 아들인데 당시 김천 찰방이었다.】

22) 西歸: 『시경』 〈匪風〉에 “누가 고기를 요리하는가, 작은 가마솥과 큰 가마솥을 씻어 주리라. 누가 장차 서쪽으로 돌아갈까, 그를 좋은 목소리로 위로하리라. [誰能烹魚, 漑之釜鬻. 誰將西歸, 懷之好音.]”라고 하여, 주나라 왕실이 쇠미해진 뒤에 賢人이 옛 주나라의 홀릉했던 정사를 흠모하면서 지은 시이다.

23) 소선의 적벽유: 중국 송나라 유명한 문인 蘇東坡가 황주의 양자강 변 적벽지역에 거주할 때 7월 16일 뱃놀이 한 내용을 근거로 赤壁賦란 명문장을 지은 것이 여러 문인들에게 알려져 재현된 것을 말한다.

24) 李獻慶(1719~1791): 본관은 全州, 초명은 星慶, 자는 몽서, 호는 艮翁이다. 1743년 (영조19) 번암 체제공과 함께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51년 정언이 된 뒤 사헌부와 사간원, 홍문관의 직책을 두루 맡았다. 그 뒤 동부승지, 대사간, 한성부 판윤 등을 역임하고 1790년(정조14) 耆老所에 들어갔다. 저서로는 『艮翁集』이 있다.

夜夜冬靑哭杜鵑 밤마다 동청에는²⁵⁾ 두견의 곡소리요²⁶⁾
 新亭高處憶前賢 새로 지은 정자 높은 곳에서 선현을 생각하네.
 滄桑獨有孤臺石 상전벽해에도²⁷⁾ 오직 외로운 대에는 돌만이 있고
 天地難忘萬曆年 천지세상 일중에 만력연간을 잊기 어렵네.
 依舊雲煙生一壑 예전의 운하는 온 골짜기에 피어나고
 至今風雨戰三川 지금의 풍우는 삼천을²⁸⁾ 흔든다.
 芳薇采采吾將祭 향기로운 고사리 꺾어서 나는 장사 제사지내고
 欲向東溟配魯連 동쪽 바다로 향해 노중련과²⁹⁾ 짝이 되고 싶네.

12. 追次自天臺韻, 寄李伯宗 _ 趙天經

자천대 운에 뒤따라 차운하여 이백종에게 부치다.

故人消息近如何 옛 사람 소식은 근래 어떠한지요
 鴻鴈秋來尙不過 기러기는 가을이 오니 여전히 지나치지 않는다네
 暇日企馮耽勝去 여가 날에 선구의 승경을 찾아 떠나고
 滿山詩料憶君多 온 산에 시 짓는 재료이니 그대 생각이 많다네
 夢回滄海團團月 꿈에 창해의 둥근 달을 돌아보니

-
- 25) 冬靑: 일명 女貞으로 지조를 상징하는 나무인데, 일찍이 송나라가 망하자, 元나라 사람이 紹興에 있는 송나라 王陵들을 모두 발굴하여 遺骸를 없애 버리려고 할 적에 송나라 義士 唐珏이 몰래 그 유해들을 수습하여 蘭亭山에 장사 지내고 또 송나라 고궁에 있던 冬靑樹들을 그 묘 위에 옮겨 심었던 데서 온 말이다.
- 26) 杜鵑: 옛날에 蜀의 望帝 杜宇가 만년에 자기 재상에게 제위를 선양하고 스스로 도망가 원통하게 죽었는데, 그의 닛이 杜鵑으로 화하여 늦은 봄, 초여름 무렵이면 항상 밤낮으로 애절하게 울어 피를 토하고서야 그친다는 전설에서 온 말이다.
- 27) 상전벽해: 원문은 ‘滄桑’이며 ‘滄桑桑田’의 줄인 말로 桑田碧海란 말과 같은데 커다란 변고를 이른다.
- 28) 三川: 岐山에서 발원하는 涇水, 渭水, 汭水를 말한다. 周나라 幽王 3년에 지진으로 인해 삼천이 흔들리는 변고가 생기자 伯陽父가 음양이 제자리를 잃어 이런 변고가 생긴 것이며, 夏나라가 망할 때도 伊水와 洛水가 말랐다고 말하였다.
- 29) 魯連: 魯仲連으로 전국 시대 제나라 政客으로 높은 지조를 지녔던 인물로 유명하였다. 그의 유세로 秦나라 군대에 포위되었던 趙나라가 위기를 넘기자, 조나라의 평원군이 봉작을 내리려 하였으나 끝내 거절하고 바닷가에 은거한 것으로 전한다.

思入長江滾滾波 생각은 장강에서 밀려오는 파도 속으로 들어가네
想像秋風遊衍地 가을 바람이 넓은 땅에 노닌 것을 그려보니
心如鶴子念新羅 마음은 매가 되어 신라를³⁰⁾ 생각하네

13. 登自天臺 【蔡處士零潭築】_ 鄭象履³¹⁾

자천대에 오르다. 【채처사 우담(채득기)이 지었다.】

落日來尋處士臺 해질 녘 처사의 누대를 찾아오니
大明年號此中崑 대명 연호가 이 속에 우뚝하구나
太歲又丁涓灘暮 태세가³²⁾ 또다시 군탄으로³³⁾ 저물어가고
江流東下使人哀 강물이 동쪽으로 흘러 사람을 슬프게 하네

30) 新羅: 어떤 상황이 신속하고 민첩하게 전개되거나, 혹은 한 생각이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빠져들 때 쓰는 표현으로, 원래 禪家에서 나온 말이다. 한 승려가 ‘金剛一隻箭’에 대해서 묻자, 祖師가 “그 화살이 벌써 신라를 지나갔다. [過新羅國去]”고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景德傳燈錄』을 비롯해 많은 禪書에 등장한다. 蘇軾의 시에도 “나의 삶 역시 자연의 변화 따라 밤낮으로 물처럼 흘러가나니, 찰나의 한 생각이 신라를 이미 지나간 것을 앉아서 깨닫겠노라. [我生乘化日夜逝 坐覺一念逾新羅]”라는 표현이 있다. 『蘇東坡詩集』卷17 〈百步洪〉

31) 鄭象履(1774~1848): 자는 중소, 우복 정경세의 7세손으로 증조는 주원이며, 부친은 익노이다. 우복이래에 경학과 문학을 전수하며 산림처사로 살았다. 당대 석학이었던 입재 정종로와 쌍벽을 이루던 손재 남한조를 비롯하여 임하 이경유, 세백 강호린 등이 나이가 많았으나 교류하였고 백하 황석로, 극재 강세규, 수계 이승배 등과 벗하여 학문을 논하고 문학을 창작하였다.

32) 太歲: 歲星으로 12년에 하늘을 한 바퀴 도는 木星의 異名으로 곧 해[歲]를 이르는 말이다.

33) 涓灘: 申의 고갈자로, 여기에서 군탄의 해는 명나라가 망한 해인 갑신년(1644 인조 22년)을 말한다. 『爾雅』에 “태세가 申에 있음을 涓灘이라 한다.[大歲在申曰涓灘].”하였다.

14. 自天臺懷古 _ 高聖謙³⁴⁾

자천대를 회고하다.

往事追惟一惘然 지난 일을 생각하니 온통 망연하고
蒼崖留護大明年 푸른 벼랑은 대명연간을 호위하고 있네
臺全野草荒烟界 대에는 들풀이 덮혔으니 연계에서 황량하고
人在秋霜烈日天 사람은 가을 서리에 있으면 해가 하늘에서 뜨겁네³⁵⁾
從古笙簫王子浦 예로부터 왕자가 물가에서 생소 불고³⁶⁾
至今書畫米家船 지금은 미가선에³⁷⁾ 서화가 가득하네
離汀立馬重回首 진흙에 벗어나 말을 세우고 거듭 머리를 돌리니
永曆青山夕照懸 영력,³⁸⁾ 푸른 산에 때마침 비추며 달려있네

15. 抵道南書院 會葛庵李先生請伸事也. 時江月正中, 挈舟沿洄於詠歸青龍之間, 泊自天臺下, 風作過涼不可上, 遂悵然而罷... 柳鼎文³⁹⁾

-
- 34) 高聖謙(1810~1886): 본관은 開城, 자는 穉希, 호는 甬里. 월봉 고인계의 후손이다. 아버지는 高夢贊이며, 어머니는 청주정씨로 鄭來成의 딸이다. 1844년 진사가 되었으나 벼슬길을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문학에도 특출하여 시명을 얻었다. 아우 文謙과 致謙도 당대에 문명이 높았던 선비이다.
- 35) 秋霜烈日天: 가을 서리와 여름 햇볕인데, 두려운 위엄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가을 서리처럼 매섭고 여름 햇볕처럼 따갑다. [秋霜烈日]”
- 36) 笙簫: 생소를 분다는 것은 곧 仙境에서 노니는 것을 의미한다.
- 37) 米家: 송나라 때 米芾이 항상 배에 書畫를 가득 싣고 강호를 유람하였으므로, 후세에 미불의 서화를 가리켜 米家船이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38) 永曆: 永曆帝(1623~1662)를 가리킨다. 중국 남명의 제4대 황제인 昭宗으로, 이름은 朱由榔이다. 연호는 永曆이며, 재위 기간은 1646~1662년이다. 명나라의 13대 황제인 만력제의 손자로 桂王이라고도 불렸다. 왕위에 오른 후 광서성의 계림에 진지를 두고 서구의 대포를 사용하여 청나라 군대에 맞서 싸웠다. 처음에는 전과를 올렸으나 군사력을 보충한 청나라 군대에 거듭 패배하면서 점점 남서쪽으로 밀려나 1659년에 미얀마까지 도망쳤다. 그러나 미얀마까지 따라온 청나라 군대에 포로로 붙잡혀 결국 중국으로 압송된 뒤 처형당하였다.
- 39) 柳鼎文(1782~1839): 본관은 全州, 초명은 齊文, 자는 耳仲, 호는 壽靜齋이다. 공조참의 柳升鉉의 증손이다. 아버지는 안변부사 柳範休이며, 어머니는 의성김씨로 金江漢의 딸이다. 1805년(순조 5)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자 이후 과거를 단념하고 학문에 주력하여 1834년(헌종 4)에는 문학과 덕망으로 惠陵參奉에 천거되었으나

도남서원에 이르러 모여 갈암 이현일 선생에 대해 거듭 일을 청하였다. 당시 강의 달은 한 가운데 있고 배를 이끌고 읍고 돌아가며 청룡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자천대 아래에 배를 대고 바람이 일어나니 너 무 사늘해서 오를 수 없었기에 끝내 창연해하며 마쳤다.

幽鬱今來得暫痊 답답하여 지금 오니 잠시 병이 낫게 되고
滄洲秋事夜無邊 창주의⁴⁰⁾ 가을은 가없는 밤이로다.
靑龍祠下楓千樹 청룡 사당⁴¹⁾아래에는 단풍나무 천 그루이고
白鷺灘頭月一船 백로 여울머리에는 달빛 가득한 실은 배라네.
談笑衣冠江左右 이야기하며 웃는 선비들은⁴²⁾ 강의 좌와 우에 있고
沿洄咫尺界凡仙 물길 따라 오르락내리락 지척 간에 범인과 신선의 경계라네
不妨留待自天勝 머물며 기다린 자천의 승경에 개되지 마오
有隕明年頌自天 내년엔 자천을 노래할 일이 떨어짐이 있을 것이라네

병으로 부임하지는 못하였다. 아버지가 서울로 벼슬살이를 위해 떠나자 종조할아버지 柳長源에게 나아가 학업을 익혔다. 1796년 여름에는 아버지를 高城 임지에서 시종하며 柳晦文·南漢朝와 함께 금강산 유람에 동행하였다.

- 40) 滄洲: 원래 물가의 경치 좋은 곳을 뜻하지만 신선이 사는 섬을 의미하기도 한다. 남조 시대 齊나라의 시인 謝朓가 宣城太守로 나가서 창주의 정취를 마음껏 누렸던 고사와 삼국 시대 위나라 阮籍의 〈爲鄭冲勸晉王箋〉에 나오는 “창주를 굽어보며 지백에게 사례하고, 기산에 올라가 허유에게 읊한다. [臨滄洲而謝支伯 登箕山而揖許由]”라는 말로 보아, 주로 경치가 좋은 은자의 거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41) 청룡사당: 경북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비봉산 중턱에 있는 청룡사가 아닌가 한다. 1674년(현종14)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중창과 관련된 기록이 인근 도남서원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뛰어난 풍광 때문에 예로부터 불자뿐 아니라 시인문객들이 많이 찾았다 한다. 낙동강 물줄기 중 경치가 가장 아름답다는 경천대국민관광지가 인근에 있으며, 청룡사에서 굽어보는 낙동강의 풍광을 제일로 친다.
- 42) 衣冠: 옷과 갓을 단정하게 차린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대부를 말한다. 『漢書』 60권 〈杜欽傳〉에 “의관들이 두흠을 일러 盲杜子夏라고 하였다. [衣冠謂欽爲盲杜子夏]”라고 하였는데, 顏師古의 注에 “衣冠은 사대부를 이른다. [衣冠謂士大夫也]”라고 하였음.

16. 擎天臺辭 并序⁴³⁾ _ 韓章錫⁴⁴⁾

商之山兮嶮岷	상산 우뚝한 곳에
掃一邱兮淨光	언덕 하나 깨끗하게 쓸었으니
數杯兮九天	드높은 구천에 몇 움큼이요
十笏兮八荒	드넓은 팔방에 열 자 정도지만
羌不騫兮萬世	아, 만세 동안 훼손되지 않으리니
近帝居兮雲鄉	천제의 거소인 운향에 ⁴⁵⁾ 가깝다네
山有橘兮澗有蘋	산에는 귤이 있고 시내에는 마름풀 있어 ⁴⁶⁾

43) 〈병서〉는 다음과 같다. “李壺翁景南, 當崇禎運訖, 悲神州陸沉, 皇靈不祀, 獨上商山擎天臺, 焚香慟哭. 胤子枝元遵父遺志, 瘞于臺, 以高皇帝顯皇帝烈皇帝諱辰, 用家藏遊擊將軍吳惟忠所贈成化萬曆二尊, 崇玄酒以奠之. 子孫世守是禮, 迄于今不替. 嗚呼. 苟以義起一間茅屋, 可祭先王, 享之以誠, 則澗谿沼沚之毛, 可薦於上帝. 況我邦之於皇明, 家尸戶祝, 聖人已許之矣, 於禮爲不汰乎. 遺民韓某, 聞而義之, 作歌以遺之, 俾作迎神之侑. 其辭曰(호옹 이경남은 승정의 운세가 끝난 때를 당하자 신주가 몰락해 황제의 영령에 제사 지내지 못하게 된 것이 슬퍼 홀로 상산(상주)의 경천대에 올라가 향을 사르고 통곡하였다. 만아들 지원이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경천대에 제터를 마련하고 고향제(명 태조)·현황제(명 신종)·열황제(명 의종)의 기일에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유격장군 오유충이 준 성화·만력의 두 술잔을 사용하여 현주를 올려 제사를 지냈다. 자손이 대대로 이 예를 지켜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다. 아야! 참으로 의로써 일어난다면 한 칸 초가집에서도 선왕께 제사할 수 있고, 정성으로 제향을 올린다면 계곡 시내와 늪가의 풀도 상제께 제사 음식으로 올릴 수 있다. 하물며 우리나라가 황명에 대해 집집마다 제사 지내는 것을 성인께서 이미 허락하셨으니, 예에 지나치지는 않으리라. 유민인 나 한 아무개는 이 얘기를 듣고 의롭게 여겨 노래를 지어 주어 신을 맞이할 때의 도움으로 삼도록 한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44) 韓章錫(1832~1894): 자는 穉綏, 호는 眉山, 시호는 文簡이다. 1872년(고종9) 정시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벼슬을 거쳐 1888년 대제학이 되었고 그 후 함경도 관찰사를 지냈다. 金允植, 閔台鎬와 함께 당대의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다. 저서에 『眉山集』이 있다.

45) 雲鄉: 白雲鄉의 준말로 仙鄉을 가리킨다. 『莊子』〈天地〉에 “저 흰 구름을 타고 천제가 사는 곳에 이르리. [乘彼白雲, 至於帝鄉]”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46) 귤이 있고 시내에는 마름풀: 귤과 마름은 모두 제사에 올리는 음식의 뜻으로 쓰였다. 귤은 전통적으로 귀한 祭需이며, 마름은 『시경』〈召南 采蘋〉에 “이에 마름을 뜯기를 남쪽 시내에서 하도다. 이에 마름을 뜯기를 저 흘러가는 도랑에서 하도다. [于以采蘋, 南澗之濱. 于以采藻, 于彼水瀕]”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이는 부인이 사당에 제사 지내면서 제수를 장만하기 위해 나물을 캐는 것이다.

穆將愉兮三皇
 潔齋俟兮虔求
 神所遊兮無方
 睠九土兮腥羶
 獨一隅兮扶桑
 濯東海兮滔滔
 照日月兮煌煌
 霓爲旌兮雲爲車
 靈之來兮洋洋
 風飄兮泉冽
 地久兮天長
 天長兮地久
 懷美人兮不能忘

공경히 장차 세 분 황제를 기쁘게 한다네⁴⁷⁾
 청결히 재계하고 기다려 정성스럽게 구하나니
 신령이 노니는 곳은 일정한 방향이 없다네
 중국 땅을 돌아보면 오랑캐의 노린내 나지만
 유독 한 구석에 부상이⁴⁸⁾ 있어
 도도한 동해가 깨끗이 씻어 주고
 빛나는 일월이 비추어 주네
 무지개를 깃발 삼고 구름을 수레 삼아
 신령이 오심이 성대하다네
 바람은 가벼이 불고 샘물은 차가우니
 하늘과 땅처럼 영원하리라
 하늘과 땅처럼 영원하리니
 아름다운 이 그리워하며 잊지 못하네

47) 세 분 황제: 경천대에서 제사를 지내는 명 태조, 명 신종, 명 의종을 가리킨다.

48) 扶桑: 해 뜨는 동쪽 바다에 있다는 전설의 神木으로 여기에서는 동쪽에 있는 조선을 가리킨다.